

interview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 김달진

공적 영역에서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노력이 필요



아카이브 자료는 우리 미술의 역사일텐데, 우선 그 정의와 그것의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카이브'라는 말이 미술계에 확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르코에서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나 계획서 등을 모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아카이브는 보존 가치가 있는 오래된 자료와 기록보관소를 말한다. 물론 현재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자료가 아카이브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시에서 발생된 모든 것, 즉 도록이나 팸플릿, 포스터, 초청장 등을 비롯해, 관련 기사도 이 범주에 든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아카이브라면 작가와 관련한 모든 것, 일기나 서신, 유품, 주고 받은 문서, 화구 등이 다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 작가를 심도있게 연구하려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미술계가 작품을 수집하면서 자료에 대해 수집을 못했다. 그 결과 우리 근현대 자료가 다량 소실되었다. 실제적 실물을 본격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연구센터 계속 소식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의 연구소 개관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물론 미술연구센터 개소를 환영한다.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하나는 아카이브 생산 주체가 미술관인데 국립현대미술관 정도면 직제를 만들고 동시에 아카이브를 열심히 축적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립현대미술관도 개관한 지 44년이 됐는데 미술관 자체 아카이브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전시를 위한 행정기록도 포함해서 말이다. 둘째, 사실 아카이브 기관의 자료를 관리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공기관과 사설기관의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네트워크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카이브 보존 실태는 어떠한가?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여러 번 발표할 바 있다. 공립미술관인데도 자료실에 담당직원 한 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 박물관도 담당자의 부(副)업무에 해당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기반이 없으니 아카이브라는 용어에 혼선이 생긴다. 웬만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술관도 자료 수집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러하는데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간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면서 거둔 성과라면? 11월 19일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한국아트아카이브 협회가 창립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돌아보니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연구센터 개소 소식은 세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미술계에서 아카이브 연구라하면 떠오르는 이가 있으니 바로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현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2008년 등록)과 한국미술정보센터(www.artarchives.kr, 2010년 오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이렇게 미술계 자료를 수집, 관리, 분류하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 그를 만나 우리 미술 아카이브 정책과 자료 소장과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들어보았다.

우리 아카이브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느낌이다. 40여 년 전 고교시절부터 자료의 중요성을 생각했던 것이 지금에 이른 것이다. 1981년 국립현대미술관 근무를 시작하면서 자료실 개소에 담당자로 수집하고 분류, 관리하는 실무를 익혔다. 초창기에는 자료실에 서적 몇 권이 전부였다. 그리고 분류체계가 없어 그것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정도였다. 이후 가나화랑(현 가나아트센터)에서 5년 10개월 자료실 실장을 했다. 2007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자료를 공개했고, 2008년에 김달진미술박물관을 2종박물관으로 등록했다. 박물관 개관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1년에 많은 이에게 열람 서비스를 하기 위해 "2010 예술전용공간 임차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 선정되었다. 그때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현재 김달진미술박물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아카이브보다 더 발전한 형태에 이르렀다. 이른바 '라키비움(Lachiveum)'이다. 도서관(도서), 박물관(작품, 자료), 기록관(기록)의 합성어인 셈이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카이브 자료를 우리 미술계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모인 자료를 통해 전시를 열 수도 있고 학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전에 펴낸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 60년》, 《외국미술국내전시 60년》, 《한국미술단체 100년》을 보면 비평가, 큐레이터에게 설문을 돌리면서 학술적인 가치와 문제점의 도출, 이면의 상황을 자료화 했다. 이렇게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세미나도 열고 소논문, 연표 등을 제작해야 한다. 또한 위작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미술자료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술자료 연구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카이브 시스템은 한 나라의 역사이고 문화적 경쟁력이다. 개인이나 사립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 부족, 과학적인 보존처리, 표준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기록문화의 필요성과 가치 평가를 강조하며 또한 국가의 정책적인 책무로 외형적인 행사는 줄이고 우리 문화유산을 남겨야 한다.

황석권 수석기자

한국미술정보센터 자료실 광경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윤익영
12월 13일 아르코 예술가의집에서 '아시아 현대미술이란?(Asian Contemporary Art?)'을 주제로 아시아 비평 포럼을 주최한다. 20세기 초반 이후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서양미술의 영향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적 대응이 어떤 양상을 띠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발생한 미술의 양상과 변화 과정, 이에 대한 비평적 전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논의한다.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전보삼
11월 11, 12 양일간(2013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박물관·미술관 및 문화예술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문화환경에서 박물관의

운영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박물관, 미술관 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4회 올해의 젊은 큐레이터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수상자는 김현민(시안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배성환(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주임)이다.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 이명옥
본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추진한 2013년도 사립미술관에 듀케이터 및 인턴 지원 사업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협회는 지난 1년간의 각 미술관 평가를 종합해 우수 인력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부상이 수여되며 시상일정과 수상자는 12월 초 결정된다. 해움미술관(경기 수원),

동이미술관(전북 전주), VM아트미술관(전북 완주)이 최근 협회 신규 회원관으로 가입했다.

한국큐레이터협회 회장 윤범모
11월 30일에 <한류협 월례포럼 2013. 11.30> 박성현을 푸른길문화공간 심사와에서 열었다. 발제자인 박성현은 다변화하는 큐레이터의 활동 영역과 방법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지난 광주 월례포럼에서 호남제주지회 준비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강원충청과 서울, 경인 등 각 지회를 꾸릴 예정이다.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회장 김달진
11월 19일 서울 동숭동 예술가의집에서 창립식을 개최하고 '아트아카

이브에 관한 몇 가지 담론'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7편의 외국 연구자료를 번역한 글과 국내 아트아카이브 현황에 대한 연구 2편으로 구성되었다. 본 식에서는 회장에 김달진, 부회장 겸 사무국장에게 서진석이 선출됐으며 박주식 김철호 이호진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한국화랑협회 회장 표미선
협회가 주최하고 소속 회원화랑이 참가하는 2013 화랑미술제 참가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32회를 맞이하는 2014 화랑미술제는 삼성동 코엑스C홀에서 내년 3월 5일 개막하여 3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접수 대상은 한국화랑협회 소속 정회원이며, 접수마감은 12월 5일까지다.

notice

권영우 화가
11월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상원미술관 관장 남영우
11월 22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서울대 조형연구소 소장 이순종
11월 15일 서울대학교 미술관 오디토리움에서 '세계 미술대학의 교육: 제도과 방법, 미술가-교수와 학생-미술가'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라리오갤러리 대표 김창일
고(故) 김수근이 설계한 서울 원서동 공간사육을 매입했다.

안창수 화가
일본 국제서화교류단체가 주최하는 제41회 국제공모 전일전(全日展)에서 전일전준대상을 수상했다.

우진문화재단 이사장 김선희
우진문화공간이 목정문화상 미술 부문에 선정되었다. 우진건설 김경곤 회장은 2013년 한국메세나대상 '메세나인상'을 수상했다.

유홍준 명지대학교수
11월 28일 '미술사의 사회적 실천을 위하여'를 주제로 정년퇴임 기념 강연회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에서 열렸다.

이갑철 사진가
11월 16일 제1회 '최민식사진상' 본상을 수상했다.

이흥규 한국화가
전북지역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김치현청년미술상'을 수상했다.

인천여성작가연합회 회장 박희자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GCF DC 녹색성장 국제 미술전>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다.

주은지 뉴욕 뉴뮤지엄 큐레이터
2015년 3월 개막하는 샤르자 비엔날레12(Sharjah Biennial 12) 큐레이터로 선임됐다.

커먼센터 디렉터 함영준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23-2에 미술공간을 연다. 개관준비전으로 김영나와 이은우의 2인전이 열린다.

하석만 화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제29회 현대사생회원전>과 내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에서 열리는 <현대사생회 인제설경전>(12.6~2014.1.12)에 참여한다.

한국화랑협회 회장 표미선

11월 23일 호텔 프리마 신암연수원에서 '미술사와 미술품 감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장
11월 20일 명지대학교에서 명예미

술학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허 관장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전통자수와 규방문화재를 수집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미술사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바로잡습니다
2013년 11월호 117페이지 박노해의 작품 제목은 <수단의 어머니 Old Dongola, Nubian, Sudan> (2008 ©박노해)입니다.



사료
•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창간 24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특집기사 '차세대 리더 100'에 <월간미술>이 국내 미술 분야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선정됐습니다.
• <월간미술>은 국내 발간 미술월간지 가운데 유일한 한국ABC협회(Audit Bureau of Circulations) 회원으로 가입해 발행부수를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수습기자로 임승현 씨가 입사했습니다.